

서민들 살인폭염에 혁혁대는데 자치구 의회는 '황제 냉방' 논란

비회기 중인 복구의회 의원실
20곳 중 빈방 19곳 에어컨 가동
공공기관 냉방기준 안 지켜
모범 보여야 할 구의원들 무감각
"힘겨운 서민 삶 공감하겠다" 빈축

서민들이 힘겹게 폭염을 견뎌내는 상황에도 광주 자치구 의회는 이른바 '황제 냉방'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냉방 기준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외출 중일 때도 종일 에어컨을 켜놓아 기후위기 시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복구의회에서는 부재 중인 의원 16명 중 9명의 의원실에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다.

광주복구청사 3층(의회운영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안전도시위원장 등)과 4층(의원실)에 있는 의원실은 회기 중이 아닌 탓에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지만, 에어컨은 계속 가동돼 텅 빈 의원실에서 냉장고처럼 한기가 돌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정한 공공기관 여름철 냉방 온도는 26~28도다.

하지만 광주복구의회 의원실의 에어컨 설정 온도는 그나마 가장 높은 것이 24도였으며, 심지어는 17도까지 낮은 의원도 있었다.

이날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5일 오전 찾은 광주복구의회에서는 총 20명의 의원 중 부재 중인 19명의 의원실 에어컨이 모두 가동 중이었다. 현재 복구의회는 비 회기기간이다.

일부 문이 잠긴 의원실의 경우 불이 꺼져있었지만 문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설정 온도는 24도부터 27도까지 다양했다.

광주복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과 낮 시간 동안 의원실 에어컨 동작 여부와 온도 설정은 의원이 직접 하고 있다.

바로 아래층인 복구청과는 정반대다. 복구청은 중앙난방 시스템으로 에어컨을 관리하고 있어 설정 온도를 26도 이하로 낮출 수 없으며, 구청 청사 관리과를 통하지 않으면 임의로 설정온도를 조절할 수도 없다.

청사 인터리어 공사로 인해 임시로 별도의 건물



지난 5일 불이 꺼진 채 에어컨만 켜진 광주복구의회 의원실. 왼쪽 위는 또 다른 의원실의 냉방온도가 17도로 설정돼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다.

을 사용하고 있는 광주동구의회의 경우 의원이 부재 중인 2개 의원실(4명)에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다.

광주동구의회 관계자는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 출근 시간보다 앞서 에어컨을 켜놓고, 오전 10시 이후까지 의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끄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서구의회와 남구의회, 광산구의회는 의원이 자리에 없을 경우 에어컨을 꺼 두고 있었다.

광주시의 한 구의원은 "업무 특성상 자리를 자

주 비워야 해서 에어컨을 켜 둔 채 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퇴근 하기 전에는 꼭 에어컨을 끄고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청사 에어컨 설정 온도 높이기 등 모두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구의원들은 무감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의원들이 서민 삶에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글·사진=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 국립공원서 심장돌연사 '주의'

무등산·다도해 등 5년간 5명 사망...안전사고로 66명 부상

광주·전남지역 국립공원에서 최근 5년간 5명이 숨지고 66명이 안전사고로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립공원공단이 발표한 '탐방객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광주·전남지역 국립공원인 무등산, 지리산, 전남, 월출산, 다도해에서 5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다.

사망은 추락사, 동사, 익사, 심장 돌연사, 자연재해, 기타로 나뉘고 부상은 골절·상처, 탈진·경련으로 분류된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 사무소 포함)에서는 2019년과 2021년, 2022년에 각 1명씩 총 3명이 심장돌연사로 사망했다.

부상자는 39명으로 골절되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였다.

부상자 수는 2019년 12명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6명, 2021년 3명으로 대폭 줄었지만 방역조치가 완화된 2022년 9명, 2023년 8명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월출산국립공원(영암)에서는 2021년 심장 돌연사로 1명의 탐방객이 산행 중 사망했고 19명이

골절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건수는 2019년과 2020년 3건이었지만 2021년과 2023년 5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대부분이 해안가로 이뤄진 다도해국립공원의 경우 등산이 가능한 지형이 많지 않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다도해 서부에서 2019년(2명)과 2023년(1명) 부상자가 나왔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에서는 2022년 심장돌연사로 인한 사망자 1명이 나왔다.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에서 추락사 1명(2019년), 심장 돌연사 2명(2020년, 2021년)으로 5년간 3명이, 전북사무소에서 2019년과 2021년 추락사로 인해 2명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남사무소의 부상자는 2019년 3명, 2021년 2명이었다. 경남 사무소는 최근 5년간 28건, 전북 사무소는 9건이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2027년까지 무등산 국립공원에 3곳, 월출산 국립공원에 2곳, 다도해 국립공원에 4곳의 '안전쉼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안전쉼터는 자동심장충격기(AED)와 구급약품, 핫팩, 스마트폰 충전기 등을 구비한 안전 시설이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나주서, 순천서...교통사고 잇따라 발생

시내버스 운전자 등 부상자 속출

전남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6일 나주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나주시 경현동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49)씨가 중상을 입고 어지럼증과 복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버스 승객 8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날 밤 10시 10분께 순천시 해룡면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앞서 가던 1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B(64)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용차 운전자 C(24)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C씨의 승용차가 앞서 가던 B씨의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은 뒤, 충돌로 밀려나 트럭이 오른쪽 용벽을 들이받고 전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가 과속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피해 키워

최근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께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으나 당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미작동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불을 완전히

꺼뜨리는 역할을 하진 못하더라도 불길이 확산하거나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8일 오후 7시 24분께 전북 군산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쉐보레 볼트 EV 차량에 불이 났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45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소방 당국이 촬영한 영상에는 주차장 천장쪽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끊임없이 물이 분사되는 모습이 담겼다. 반면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된 인천 전기차 화재의 경우 차량 14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연기 흡입 등으로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현충일 새벽 오토바이 폭주족 17명 검거

현충일 새벽 오토바이 폭주로 시민을 위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충일 새벽 광주, 여수, 고흥 등에서 오토바이 폭주행위를 한 10대~20대 폭주족 17명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날 주동자 A(21)씨

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광주, 여수, 고흥, 순천 등지에서 여러대의 오토바이로 앞 뒤로 대열을 이뤄 시내 도로를 통행하며 일명 원돌기, 차선 변경, 지그재그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해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0대 중·고등학교

생(7명)과 20대(10명)로 이뤄져 있으며 SNS 계정을 이용해 타 지역 사람들과 집결 장소를 정한 뒤 지역별로 폭주 행위를 했다.

전남경찰은 "이륜차 등 폭주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경일과 기념일 때마다 반복되는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단순 해산이 아닌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